

KT&G,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연결 매출 5조원 최초 돌파

KT&G(사장 백복인)가 창사 이래 최대이자 최초로 연결 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KT&G는 4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조3016억 원, 1조4824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실적은 글로벌 부문이 견인했다. KT&G는 지난해 초 중동담배 수입업체와 7년간 2조20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주력 시장의 수출이 회복되고, 미국 등 해외법인의 유통망 확대 영향으로 해외 판매량이 증가했다.

국내 궤련담배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시장 등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판매량 상승을 기록했다. KT&G의 연간 국내 궤련 판매량은 416억 개비로 전년보다 2.5% 성장했다. 점유율은 64.0%를 기록해 국내 궤련 시장 'No.1'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전자담배 사업 부문도 지속성장했다. 국내 '릴' 기기의 누적 판매량은 300만대를 돌파했으며, 전자담배 전용스틱 점유율은 34.3%를 기록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경제현장.jpg



"달콤한 초콜릿과 캔디, 할인가에 구입하세요"
롯데마트가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캔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추파칩스 노래방 기획 세트는 할인가에, 오리온 핫브레이크 미니를 옐포인트 회원가에, 가나 미니초코바를 원플러스원으로 한정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마트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개시 접수 이후 첫 공식입장

“P플랜 추진 발판삼아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사전회생계획제도)

마힌드라 및 투자자와 협의 진행
마케팅 통해 판매 물량 늘려갈 계획
“국민께 심려 끼친 점 송구스러워”



쌍용자동차는 P플랜 회생절차를 추진해 초기에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쌍용자동차가 P-Plan(Prepackaged Plan, 이하 P플랜) 회생절차를 추진해 초기에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접수했으며, 해당 법원으로부터 2월 28일까지 보류가 결정된 상태다.

당초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마힌드라 그룹 및 신규 투자자와의 협상을 초기에 마무리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할 계획이었

다. 하지만 신규 투자 등과의 협상이 지연되며 부득이 P플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P플랜은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

의를 얻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회생절차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 기업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이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원활한 P플랜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 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회생계획안 등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협력사와의 납품 대금 등과 관련한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제품개선모델 출시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이어온 쌍용자동차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지하철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도 포함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분에 30% 추첨제도 도입한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신규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는 이번 공급방안 발표 이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3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3구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SKT, 국내 최초로 '민간 데이터 댐' 구축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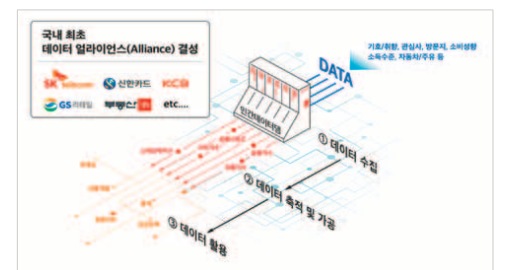
GS리테일 등과 얼라이언스 결성

SK텔레콤은 통신과 카드 등 각 분야 기업들과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국내 최초로 '민간 데이터 댐' 구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GS리테일, 부동산114 등과 이달 중순 데이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은 물을 가두는 댐처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참가사들은 보유 가명정보를 수집, 결합하고 분석, 유통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데이터 댐은 시장 트렌드 기반 상품 개발과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등 의사결정에 직접적 도움이 될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상품', '데이터 기반 정기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지오비전 유동인구 데이터와 신한카드의 소비 정보 등을 가명 정보화해 비식별 결합



민간 데이터 댐 개념도

하는 식이다. 이동, 소비, 유통 정보를 결합하고 자동차 브랜드별 소유주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민간 데이터 댐 구축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주도 데이터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정책 수립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성 SK텔레콤 광고·데이터 Co장은 “한국 최고의 데이터 기업들과 힘을 합쳐 '민간 데이터 댐'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며 “SK텔레콤은 빅데이터 기업으로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며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자본공유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아!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풀양이계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성민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정국장 010-7653-5373 / 이주지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황경성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수원인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영환 010-3742-5998 / 전남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강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원 010-5769-0532 / 천안 김혜덕 010-6258-3510 / 우명호 010-8804-3424
- 인천 박은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현 현찬희 010-4707-2659
- 함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드라마 010-3435-0159 / 반우원 010-5221-8119 / 김연내 010-9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9983 / 평강 교명필 010-5463-6952 / 중국 송능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해외이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lubuntu 1644-6733